

(10) 가타오나미 공원 만엽의 길 (제 7 권 1219 번)

【시비 내용】

와카노우라니 시라나미타치테 오키츠키제 사무키유우베와 야마토시오모오유

【해설】

이 시는 만요슈(만엽집) 제 7 권에 실린 시(1219 번 시)입니다. 진키원년(724)에 쇼무텐노(천황)가 키노쿠니(와카야마현) 타마츠시마를 방문했을 때 읊은 시라고 추정됩니다.

천황앞에서 일련의 공식 행사를 마치고 관료들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작자는 혼자 해변에 서성이며, 저물어가는 와카노우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기시작한 바닷바람과 흰파도에 쌀쌀함을 느끼며, 나라의 수도, 그리고 그곳에 남겨 둔 가족을 생각합니다. “와카노우라에 흰파도가 일고, 바닷 바람에 쌀쌀함을 느끼는 저녁노을에는, 나라의 수도가 절실하게 생각납니다.”

근대의 자동차 사회에서 보면 나라와 와카야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만, 당시는 나라에서 와카야마까지 3,4 일이나 걸렸었습니다.

만요슈에는 “와카노우라(화가의 포)”를 “와카노우라(약의 포)”라고 썼습니다.

이 노래의 작자는 “후지와라 경”입니다.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자손(4 형제)중 후지와라 후사사키 혹은 후지와라 마로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비의 문자는 **코사카 지로** 씨의 필적입니다.